

의료법			번호: IV - B - 6		
제 목	국문	국내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윤리적 고찰			
	영문	Ethical judgement on the treatment and control of the psychiatric patients in Korea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전효숙 ¹⁾ , 유호종 ²⁾ , 서홍관 ³⁾ 인제의대 의료윤리학 교실 ¹⁾ ,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²⁾ , 인제의대 의료윤리학교실 ³⁾			
	영문	Jeon, Hyo suk ¹⁾ , You, Ho Jong ²⁾ Seo Hong Gwan ³⁾ Dept. of Medical Ethics, Inje university ¹⁾ , Dept. of Public Health,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²⁾ , Dept. of Medical Ethics, Inje university ³⁾			
분 야	보건관리 의료법	발 표 자	전효숙	발표형식	구 연
			일반회원		
진행상황	연구중				
<p>1. 연구목적</p> <p>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졌다.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을 외면해왔지만 정신질환의 치료는 폐쇄병동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고, 이것이 곧바로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. 이 법에서 강제입원 조항과 관련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오랜 논란이 있어 왔고, 법 외에도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과정과 퇴원 후 그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침해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.</p> <p>본 연구는 생명의 존엄성은 물론 삶의 질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는 현 시대에서 국민이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약자의 위치에서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속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하여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모색하여 보고 나아가 정신보건법 및 국가 정신보건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한다.</p> <p>2. 연구방법</p> <p>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과정과 퇴원 후 관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 자료와 문헌을 통해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중심으로 분류한다. 분류된 내용을 의료윤리의 4원칙을 가지고 분석한다. 이미 논의된 외국의 예들과 비교고찰한다.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.</p> <p>3. 연구결과</p> <p>정신질환자는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,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,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환자, 퇴원한 환자로 4개로 구분되었다. 이들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은 크게 환자의 자율성 보호(강제입원과 관련하여), 환자의 비밀보장, 환자에게 악행금지 (격리 및 감금과 관련하여)로 분류된다. 실제로 미국에서는 타라소프 사건과 조이스 브라운 사건들이 있어 이를 우리나라 사례들과 비교 고찰할 것이다.</p> <p>4. 고찰</p> <p>우리나라는 과연 인권국가인가하는 물음에 명확히 대답할 수 없다. 나아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. 그들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분류화하고 분석하며 외국의 예들과 비교한 내용이 국가정신보건 정책에 반영되고 국민들에게 보급된다면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.</p>					